

(생명의 은행, 숲의 모든 것)



《숲의 생활사》 깊이 읽기

《숲의 생활사》 차운정 지음 | 웅진닷컴 | 232쪽 | 값 15,000원

나는 차운정의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지 않기로 했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나 교훈적이고 새로운 사실을 접할 때는 언제나 줄을 그으면서 읽어야 직성이 풀리지만 그녀의 책에 줄을 긋는 것은 무의미하다. 거의 모든 문장에 줄을 긋는다면 줄이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숲의 생활사》를 읽으면서 나는 마치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월든》을 읽고 있는 착각에 빠졌다. 소로우는 마하트마 간디의 불복종 운동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다. 한때 전 미국의 대학졸업생들에게 “졸업장 대신 이 책을 선물하자”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월든》은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책으로 남았으며 사람의 심성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에게 삶과 자연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

《신갈나무 투쟁기》(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로 한껏 주가를 올린 차운정의 또 한 권의 숲에 관한 기록, 《숲의 생활사》를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장래 우리나라 숲에 관한 이야기꾼으로 정상에 우뚝 설 것을 의심치 않았다. 차운정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임학도(林學徒)로서 나무에 대한 깊이 있고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데다 문학적 소양이 매우 뛰어나다는 데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면 이 책의 완성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지적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우선 그녀가 나와 같은 임학도라는 데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늘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치해 반갑기만 하다. 책을 읽는 내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과 비발디의

사계에 취해 있는 듯했다. 그리그의 페르퀀트 중 ‘아침의 기분’을 듣고 있는 느낌이 들곤 했다.

> 시적 수준에 도달한 수려한 문장

“조팝나무는 너무 일찍 꽃을 피우느라 미처 향을 만들지 못했지만 짙레는 달콤한 향까지 풍긴다. 짙레덩굴에는 언제나 벌레가 왕왕거린다.” 서둘러 꽃을 피우는 조팝나무는 미처 향을 준비하지 못했고 늦었지만 향을 가득 담은 짙레꽃에는 벌들의 잔치가 펼쳐진다는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력에 나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서정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이 봄 햇살처럼 환하고 따사롭다.

여름 풍경을 묘사하는 그의 글솜씨를 보자. “고요한 여름숲은 깃털 부딪히는 소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초록의 장막은 바람도 막아내고 그 어떤 움직임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 숲은 가장 적막하고 쓸쓸하다.” 숲의 적막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문장을 나는 찾지 못한다. “밤의 휴식 없이는 한낮의 치열함을 견딜 수 없다.”는 표현은 마치 숲속의 신사 자작나무처럼 반듯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표현을 담은 문장이 아닌가 싶다. “탐스럽게 부풀어 오른 붉은 과육은 미각을 한껏 돋우고 달고 맛난 향기는 정신마저 혼란스럽게 한다”는 글을 읽다보면 금방이라도 군침이 돈다.

> 숲에서 캐낸 보석, 삶의 지혜들

“대마초는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할 목적으로 강력한 환각물질을

을 만든다. 담배는 그 독성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주변의 다른 식물들에게도 경고의 효과가 발휘된다. 봄나물들의 향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목적을 갖기에 더욱 신비로운 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수한 적들에 의해 일부는 뜯겨나가도 식물은 삶에 대한 집착을 떨칠 수 없어 기형적인 모양새로 피어올라 기어이 꽃을 피우고 씨앗까지 날린다.”

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처럼 세밀하고 힘차게 표현할 수 있을까? 대마초와 담배에 관한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마초와 담배의 폐해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그녀의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나비는 그야말로 화려한 외형적 변신으로 인해 과거를 용서받는다. 꽃들에게 나비는 거부할 수 없는 방문자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 나비 애벌레는 무서운 속도로 식물의 잎을 해치우는 존재들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잎사귀는 일그러지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식물과 나비의 관계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 숲의 파괴와 환경위기 고발

숲을 보호해야 하고 자연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책 곳곳에서 묻어난다. 사람은 원래 숲에서 왔고 결국 숲으로 돌아갈 존재이다. 숲에 대한 그녀의 시선은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듯하다. 어쩌면 숲이 그녀의 몸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연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꽃이 피고 싹이 피어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벚꽃의 개화시기가 2주 이상 앞당겨지고, 새잎의 성장속도가 빨라졌다. 이른 봄 진달래가 피고 난 후 늦봄에 철쭉이 피어났는데 요즘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함께 피고 꽃과 잎이 뒤섞여 피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혼란스러우면 곤충의 방문이 뒤죽박죽되며 동시에 종간種間의 교잡이 무질서해진다고 말한다. 선불리 개화한 식물은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곤충들로 인해 수분(꽃가루받이)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 진리의 거대한 창고, 숲의 교훈

“가지를 잘라도 뿌리를 잘라도 잎을 잘라도 본래의 나무로 자라는 기적 같은 포플러나무는 자연의 위대한 복원력을 느끼게 해준다. 생명은 제 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몸체를 줄이지 못한 생물은 멸종했다. 식물은 몸체가 줄어들었으나 몸을 줄일 수 없었던 공룡은 멸종했다”고 주장한다.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운정이 보는 공룡의 멸종 이유는 신선할 정도로 독특하다. 낙엽 속에서 잠자던 씨앗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른 봄을 일구기에는 삶의 여정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치열한 여름 동안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크다”고 표현한다. 조릿대는 나름대로 키 큰 나무들과 타협점을 찾았다고 설명한다. “봄에 잎을 피우지 말 것, 깊이 뿌리를 내리지 말 것, 늦게 성장할 것”이 조릿대의 살아남기란다. 성장하고 싶은 열망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명징한 해설이다. 숲 해설가가 들려주는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이다.

> 정상의 생태학습지, 숲의 교과서

그녀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가는 곤충수는 대략 1만5,000종이고 식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은 300종이 채 안된다고 한다. 복잡한 숲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견제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식물이 포식자를 견제하고 곤충이 곤충을 견제하고 새, 개구리, 도마뱀 등이 곤충을 조절한다. 식물 스스로가 그 정도의 탐식에는 끄덕없다고 그녀는 들려준다. 참으로 이름다운 숲에 관한 이야기다. 산소 같은 책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위대함을 일깨우는 질 높은 책이다. **출판**

강병국 | 국제신문 부장

이 글을 쓴 강병국은 경상대학교 대학원 임산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1996년과 2003년에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1998년에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일경언론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국제신문 사회2부장, (사)푸른우포사람들이사로 있으며 저서에 《우포늪》이 있다.